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명절      제목 :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성경: 신명기 16장 10-17절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16:10-17)

설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날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고, 세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다. 새해 첫날이니 경건하고 정결하게 지내자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하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시작하자는 뜻이 담겨 있고, 세배를 하는 것은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자는 뜻이 담겨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경건하게 지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요즘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꺼림이 되는 것이 제사다. 다른

것은 다 좋으나 음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이 나온다. 심지어는 설을 지내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온다. 물론 설날 싸운 것 때문에 이혼했다기 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이 누적되었는데, 설날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점점 설날 음식에 대해서 회피하는 지혜를 짜내는 모양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되면 곤란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명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다.

먼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이니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사는 예배로 대체하고 집안의 신앙주가 예배를 인도하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오늘처럼 설날이 주일인 경우에는 더욱 뜻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경에서 명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조상 보다는)

가정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앞장서서 예배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순서를 맡기고 말씀과 찬송을 준비하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식구들과 의논한다면 무엇보다 뜻 깊은 명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음식은 각자 조금씩 마련하든지, 아니면 외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다.(이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음식문화를 변경시킨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명절이지 누구는 가사노동으로 고통 받는 날이거나, 비용 때문에 힘겨운 날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세배는 그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세배 하면, 세배돈만 생각하면 안된다. 귀성객

들이 오고가는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특히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살아계신 부모가 죽은 조상보다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은 설에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는 좀 소홀한 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첫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둘째 레위인, 즉 성직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셨다.

셋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고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하셨다.

그러니 너는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다. 즉 명절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장 즐거워하라 하셨다.

형편대로 즐거워해야 한다. 과도하게 지출함으로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형편껏 준비해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요, 부담되는 것을 강요하지도 기대하지도 말 것이요, 각자 형편껏 준비해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만, 내 식구만 즐거워하면 온전히 즐거운 명절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내 주변에 소외받는 자가 누구인지 살피서 그들과도 즐거워야 하나.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즐거워야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명절에 오히려 갈등도 해소되고 복도 받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